

2008 새해설계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박영호

“더 이상 자녀가 우리 노후의 보험이 될 수 없다”

“고객서비스 질 향상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2008년1월1일자로 부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박영호(52·사진)지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배려와 인화단결과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朴英浩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는 직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하반기부터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해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직원들간의 웃음이 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반기부터는 고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을 섬기는 정서로 고객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박영호 지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2008년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의 새해설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포천시지사의 조직과 관리업무는?

포천시지사는 2006년7월1일자로 개소하여 16만 포천시민과 5만 철월군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관리를 하고 있다. 지사장을 중심으로 고객상담팀, 연금지급팀, 직장고객지원팀, 개인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12월31일 사업장 4천810개소에 사업장 가입자 3만4천721명과 지역가입자 4만1963명, 그리고 연금수급자 9천79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월 보험료 징수금액은 약 49억원 규모다.

▶2007년도 사업성과는?

고객감동추진단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으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사 방문이 어려운 연금수급자를 직접 방문하여 고객 상담과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몸이 불편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만 126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은퇴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자 수급자 명

함 만들어주기 운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년간 139명이 신청하여 명함을 전달했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혁신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분야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월별 목표관리제 실시, 사업장 파트너십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월 평균 징수율을 종전의 87.1%에서 96.6%로 9.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전국 91개 지사에서 25위를 차지하여 2006년도 56위에서 30단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우리지사는 2008년도 사업운영 기본목표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체계 확립에 두고 이를 위하여 고객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고객에 대한 노후설계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고객과의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본인의 노후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금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대외 설명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올바른 연금제도에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로 이러한 지사의 핵심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과 직원을 섬기는 데 있다. 감성경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포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라고 말하고 싶다. 2008년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해이다. 1988년 제도 시행 당시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발미로 가입 거부, 명분을 내세웠던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민이 기금고갈을 우려하고 풍문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월100만원대의 연금을 타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의해서 이러한 우려와 인식은 상당부분 가시졌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에서 포천과 철원지역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소득신고율이며 보험료 납부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공적보험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아직도 일부 잔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포천시지역 연금수혜자 수의 비율에서나 수혜 폭에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낮아지는 부정적인 미래가 예측되고 있다. 국민연금금은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적립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더 이상 자녀가 우리 노후의 보험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만이 자녀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조차 짐이 되지 않는 길이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된다면 주저 말고 지금이라도 공단에 소득 신고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특권을 누리야 한다. 걸어진 평균수명이 준비된 자에게는 신의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죽지 못하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포천시지의 비전은?

포천·철원지역주민의 노후설계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사무실 개설이후 2년여 가까이 대내적으로 업무를 초기에 안정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지사장에게 있어 섬겨야 할 내부 고객이다. 또한, 그들 역시 외부 고객의 가입자의 노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외부고객을 섬겨야 할 직원이기도 하다. 이렇듯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에게는 다른 조직보다도 감성지수를 높인 사람 중심의 경영이 요구된다. '사람에 대한 배려' '직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화와 균형'이 우리 지사의 핵심 가치이다. 지사장의 역할을 바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그동안 포천신문에서 국민연금 QA를 통해 상식을 제공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8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첨병임을 잘 홍보해주는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개점 1주년

전국 으뜸 모범 점포로 자리잡아

판매물건 외부 유입 포천시민 헌물건 기증 필요



하승원 본지 취재국장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2월23일 개점 1주년을 맞았다. 이날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양호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활동 전사 성현진, 이춘자, 김영자, 박혜용 등 4명과 운영위원으로서 적극 동참한 고경자씨 등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호식 운영위원장은 "아름다운 포천시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참여해 개선했고, 활동전사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서 "2007년 도에는 2천만원의 수익이나 행사를 가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가진 후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운영체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되 매니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원한 건축사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그동안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었던 운영위원들은 후원회로 남기로 하고 양호식 법무사를 후원회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대표제체 존속여부를 논의한 끝에 존속하기로 하고 양주승 대표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하여 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나눔과 순환, 그리고 자원의 재생산이라는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2007년 2월23일 제75호점 오픈마켓 1층에 아담한 공간에서 오픈했다. 오픈할 당시만 하더라도 물건을 누가 구매할까?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냥 하다가 팔겠지"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모범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 출발부터 달랐다. 다른 지역 아름다운 가게와는 달리 포천점은 포천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가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포천리더스클럽 회원과 기업인, 기관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씨앗자금 6천300여만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필마트 김창환 대표가 12명 점포와 창고를 무료로 제공해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포천시청 공무원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사, 포천경찰서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행사를 통해 포천점은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게 됐다. 아울러 일동우뚜기 축제와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나눔과 순환이라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 포천시민들이 점차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됐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자리매김하는데는 이형숙 매니저와 자원봉사자 21명과 활동전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활동전사라고 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말한다. 활

동전사들은 순번제로 아름다운가게에서 시간제로 매주 4시간 혹은 5시간씩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개점 9개월만에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판매이익금 2천만원의 아름다운가게 본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지난해 수익나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2천만원의 수익금을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학생,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지난해 연말에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개점한 후 첫 결실을 배 푸는 날이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을 찾는 시민들은 매일 2천여 명이 달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단골고객들이다. 포천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의류와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포천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천동 지역이나 몇몇 도심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점 1년만에 포천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송우리 주민들이나 농촌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나눔과 순환의 원리가 아름다운가게 주된 테마인데도 포천지역에서 기증하는 물품은 그리 많지 않다. 포천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아름다운가게 본부나 수도권지역에서 보내온 것이다. 결국 다른 지역의 물품을 기증받아 포천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 포천점 이형숙 매니저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름다운가게로 연락을 주면 시간을 맞춰 수거하러 간다"면서 "물건 종류는 어린이 신발, 의류, 장난감에서부터 성인용까지 모든 물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많이 기증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증 가능한 물품은 의류와 신발, 모자, 책, CD, 그릇, 주방용품, 유아용품, 액세서리, 소형가전제품, 예술품, 레저용품 등 다양하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포천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헌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그리고 물건의 재활용으로 자원의 재생산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포천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단체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아름다운가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출범할 때 이야기 했던 '아름다운 포천사회를 위하여'라는 테마처럼 포천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포천점 탄생의 주역은 포천리더스 클럽이다. 그리고 기업인과 목가 등 100여명이 포천점의 토대를 만들어 줬다. 또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지를 잡았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갖는 의미는 나눔과 순환, 자원의 재생산 이외에도 포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이은미 푸른 뜰에 서다' 출판기념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자 이은미 올림

※직접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분과 화환이나 화분으로 축하해주신 분

- ▶남편 김정식 ▶큰딸 김연홍 ▶작은딸 김연수 ▶아들 김용주 ▶아버지 이영우
- ▶어머니 윤춘희 ▶큰형부 손영호 ▶큰언니 이민숙 ▶조카 손재범 ▶둘째형부 최병철
- ▶둘째언니 이은숙 ▶동생 이상철 ▶올케 정문자 ▶조카 이지형 ▶조카 이지혜
- ▶조카 이재영 ▶고모 이영우 ▶둘째고모부 함오준 ▶둘째고모 이영우 ▶세째 고모부 이희동
- ▶세째고모 이영순 ▶외삼촌 윤동춘 ▶외삼촌 윤덕춘 ▶외숙모 이원희 ▶이종사촌 윤대원
- ▶이종사촌 윤창원 ▶외삼촌 윤석교 ▶외숙모 심미숙 ▶김영석 ▶장미향 ▶김원식 ▶김은숙
- ▶김홍식 ▶김기경 ▶김명식 ▶유인덕 ▶유한나 ▶장영훈 ▶차형우 ▶차상호 ▶차신영
- ▶신지연 ▶이외연 ▶원정자 ▶장숙훈 ▶원용선 ▶가산연장 연제순 ▶영중명장 이인화
-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 ▶김영복 포천신문 편집국장
- ▶김종인 서울우유동북부 낙농지연센터 소장 ▶이희용 포천에총회장
- ▶이현규 서울우유포천축산계장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 ▶리효종 한시협회 회장
-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이종효 포천시의회 의원 ▶김영자 포천시의회 의원
- ▶안익수 제3의 문화 주간 ▶윤중성 포천신문 자원위원 ▶윤순옥 포천신문 자원위원
- ▶이문환 포천신문 자원위원 ▶이윤우 성관관 유도회장 ▶이인숙
- ▶송순성 전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협의회장 ▶박현희 포천복색어머니회장
-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원 ▶이희정 ▶이상관 고조흥국회의원 보좌관
- ▶김영우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은국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 ▶이종희 포천신문협회 회장 ▶김순임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 ▶장미환 포천시 가족여성회 회장 ▶정경희 포천시 가족여성보육담당
- ▶김인숙 포천시 가족여성정책담당 ▶양영희 경북대학 작업치료과 교수
- ▶이정호 자혜의 집 원장 ▶진현희 자혜의 집 사무국장 ▶이경희 낙농유업협회 여성분과위원장
- ▶김희동 포천시홀스타인점정연합회장 ▶배인호 낙농유업협회포천시연합회장
-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윤영철 가산초등학교 교장
- ▶이태희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최홍화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손영배 반월문화회 회장 ▶정기모 시인 ▶김선진 포천신문협회 사무국장
- ▶유재민 금현리 이장 ▶김남희 금현리 부녀회장 ▶유재혁 ▶민병철 금현리 새마을지도자



- ▶김승도 ▶김해룡 금현리 총무 ▶유재만 전 금현리 이장 ▶이정자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
- ▶남명구 서정대학 교수 ▶류금열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윤종현 낙농유업협회 연합총무
- ▶이인애 낙농자조금경기도위원회 ▶윤석찬 ▶양완중 가산낙농회 회장
- ▶박용미 낙농유업협회 여성분과 총무 ▶이성동 ▶윤성희 낙농유업협회 여성분과 가산지부장
- ▶권영철 ▶안문석 전 시설체소연합회 회장 ▶김순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 ▶김미경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안경준 포천꿈나무어린이집 이사장
- ▶이상만 서울우유 이사 ▶임태욱 포천축협 소홀점장 ▶원희순 가산면 생활개선회장
- ▶윤경자 주부명예기자단 감사 ▶이홍순 삼일스크린 대표 ▶김명희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 ▶이미정 주부명예기자단 신봉면지부장 ▶박서영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장
- ▶노혜신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곽복준 주부명예기자단 영중면지부장
- ▶임신화 주부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 ▶윤미숙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 ▶김옥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박성일 ▶권석호 ▶임재숙 ▶김영모 새날법무사 ▶백종민
- ▶유세현 꽃사랑 대표 ▶신영옥 ▶오정숙 ▶김영준 ▶전미숙 ▶천병순 ▶유미경 ▶유은정
- ▶이강미 ▶홍원기 ▶이순옥 ▶이규순 ▶이찬형 ▶노도환 ▶이상균 한국전기 대표
- ▶이영복 ▶진기하 ▶구훈목장 이훈구 최옥숙 ▶나물골목장 김중오 최미라
- ▶홍용복장 이용희 이숙희 ▶선계복장 이미영 ▶학성목장 심재학 이남순 ▶오형제목장 이규운
- ▶나다목장 이범휘 유영애 ▶이호복장 이호인 이정희 ▶늘봄권면선혜민홀
- ▶한국낙농유업협회 여성분과경기도위원회 ▶가산축산 김명부 이순복 ▶김상호
- ▶최유연 SK히니문화부활 ▶이종선 ▶선옥남 ▶이종문 ▶이창섭 ▶김찬미 최우호 대표
- ▶동남고등학교 21회 동창회 ▶가산초등학교 44회 동창회 ▶영민회 의양 TMR
- ▶금현리 마을회 ▶이규환 ▶윤태우 ▶김영숙 ▶낙농유업협회 여성분과 포천분회
- ▶이희승 ▶제3의문화회 ▶건아토건 ▶설우희 ▶풍산친목회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 ▶플라너스 ▶가산초운영위원회
- ▶서울유가산낙우회 ▶서정대학 김중남 정혜정 유정연 임현경 김승수 김재국 강기숙 양영숙
- ▶박혜원 ▶박혜명 ▶박혜영 ▶최호환 ▶이영규 ▶이규복 ▶이상봉 ▶이상철 ▶이규선
- ▶이유호 ▶송유정 ▶이용돈 ▶김인경 ▶플루터우 서귀포 함윤정 이상수 임혜숙 김미희 김재원
- ▶색소폰 장덕환 임원근 ▶철원 낙농농장 대표 안한욱 ▶송영숙 전사어린이집 원장

방명록에 기재하지 않고 오셨다가 가신 분들의 명단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7-248-8523